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18년 10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

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

- 보건복지부·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, ICT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 개최(10.5.)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(센터장 김현미)와 함께 10월 5일(금) 콘래드 호텔(서울 여의도 소재)에서 「ICT(정보통신기술)*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(학술 토론회)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

○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와 복지 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, 민간기업 및 관계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, IC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■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강민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의 기조연설에 이어,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국내외 주제 및 사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.

■ 세션 1에서는 국내외 IC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부·민간·기업 사회공헌 사례에 대해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, 허수정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, 김지희 (주)스튜디오크로스

컬처 대표, 박용근 SK 하이닉스 상무가 발표한다.

■ 세션 2에서는 캐나다의 앤드류 식스미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노년학과 교수가 ‘21세기 고령화 사회 기술 활용 동향’, 독일의 토마스 벅 뮌헨 기술 대학교 건축 및 로봇공학 교수가 ‘고령자 생활환경 지원 기술 발달 현황과 미래 전망’에 대해 발표한다.

○ 그리고 일본의 카츠노리 야스오카 (주)엑셀 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‘일본 고령자 돌봄 ICT 서비스 산업과 기술 동향’을 발표한다.

■ 세션 3은 종합토론으로, 고대식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.

○ 지정 토론자로는 강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융합본부 의료복지팀 수석연구원, 양재석 강남구립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, 장영승 진인사컴퍼니 대표가 참석한다.

○ 또한, 세션1과 세션2의 주제 발표자 4명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ICT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.

■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,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민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.

○ 또한 “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하고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4804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, 2018.10.5.

II

국민연금, 기금운용의 전문성·독립성 확보 위한
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

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(위원장: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)는 10월 5일(금)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「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」을 심의·의결하고, 「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」을 논의하였다.

■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“최근 기금 고갈 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”고 언급하면서,

○ “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·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 박능후 장관은 “오늘 보고하는 「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」은 그간 복지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으며,

- 앞으로 복지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

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 〉

○ (위원 전문성 강화)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마련*

* (자격요건 예시) 금융·경제·자산운용·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○ (위원 권한 강화)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(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)

○ (위원회 상시 운영) 위촉직 위원 중 상근위원(3명)을 두고,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정례화(월1회)*

* (예시) 기금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8시 개최 원칙

-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 설치

* 사무기구는 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구성 검토

○ (소위원회 체계 구축) 기금운용 분야별*로 3개 소위원회 설치

* 투자정책, 수탁자책임, 성과평가보상

- 소위원회 위원은 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, 위원장은 상근위원들이 각각 수행
- 소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한 모든 안전·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

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의 개선안을 보고받은 후, 단순히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전문성만 강화하기보다

-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,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
-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므로,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■ 한편,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개 사업(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,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)에 대한 추가 예산 소요*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「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」도 심의·의결하였다.

* 4대보험 통합징수 관련 우편요금 인상, 국민연금공단 임대사옥 공공요금 및 재산세 등 납부세액 증가

■ 박능후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

-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2가지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, 국민연금기금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.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4720,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·국민연금정책과, 2018.10.5.

III

화장품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

- 보건복지부, 화장품기업 대표·기관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(10.23)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0월 23일 KTX오송역에서 화장품기업 대표, 기관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또한, 국내 화장품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기업 관계자, 수출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.

* 2018년 상반기 기준,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0.6%증가(32억 달러, 3조5000억 원)·무역수지 흑자 57.9% 증가(23억8000만 달러, 2조6000억 원)

■ 간담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, (주)아모레퍼시픽, (주)LG생활건강, (주)사임당화장품, 잇츠한불 등 화장품 기업 관계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.

○ 보건복지부는 간담회 참석자들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최근의 수출환경변화에 대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,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.

○ 또한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, 기술개발 등의 고민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할 계획이다.

■ 권덕철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“화장품 산업이 보건의료분야의 수출 효자산업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기업들의 공로가 크며,

○ 정부는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·제공하고, 베트남, 태국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외시장 개척을 계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■ 한편,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화장품 연구개발(R&D)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신소재, 융합기반기술 등

을 개발하여, 국내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왔다.

* (화장품 R&D 주요 성과) 세계 최고 대비 화장품 기술 수준: '07년 67.4%(5.1년) → '18년 86.8%(2.4년), 상품화 329건, 국내 매출 1,386억 원, 수출 182억 원 기여(2018년 기준 누적)

- 화장품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 (Kick-off)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연말까지 진행(기업규모별/품목별)하여 새로운 R&D 아이디어 개발 및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.

화장품산업 현장 간담회 개요

■ (목적) 화장품산업의 수출 산업화 격려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과정의 애로 사항 경청 및 정부 지원방안 모색

■ (일시/장소) '18.10.23.(화) 14:00 / KTX오송역 2층 세미나실

■ (주요 참석자) 총 18명

- (정부) 차관, 보건의료정책실장, 보건산업정책국장, 의료기기·화장품 팀장 등
- (기업) (주)아모레퍼시픽, (주)LG생활건강, (주)비타코스, (주)뷰티화장품, (주)사임당화장품, (주)코스메카코리아, 팜스비앤비, (주)조이라이프, (주)화니핀코리아, (주)뷰티콜라겐, 잇츠한불 등 11명
- (단체) 보건산업진흥원, 대한화장품협회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,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등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4833, 보건복지부 의료기기·화장품 T/F과 2018.10.23.

IV

국가 정신건강 통계 및 정책 개발 위해 서로 협력

- 국립정신건강센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·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업무 협약 체결 -

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(센터장 이철)는 2018년 10월 24일(수)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 정신건강 통계 자료 생성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 -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 개원한 국립정신병원으로 시작해 2016년 개편되었고, 현재 의료부, 정신건강사업부, 정신건강연구소로 구성되었다.
 -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정신건강사업부는 ‘공공정신건강 체계의 새 질서 구축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
- 협약 기관들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
 -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정신건강 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 공유
 - 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되는 국가 정신건강 현황 통계 생산
 -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공동 발간 등
 - 협약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- 협업 내용: 국가 정신건강지표 선정, 국가 정신건강지표 산출 기준 검토, 국가 정신건강지표 산출 결과 검토
 - 국립정신건강센터: 문항 조사표 설계, 국가 정신건강 현황 조사 및 분석, 보고서 발간 및 배포
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: 정신건강 서비스 성과 관련 지표 생산
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: 의료기관 이용 관련 지표 생산, 국내·외 통계 자료 수집

○ 협약의 첫 성과로 국가 및 국제 정신건강 주요 통계를 수록한 ‘2018년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’를 연내에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.

■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영역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 생산이 가능하며, 승인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4840,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과, 2018.10.25.

| | |
|---|---|
| V | <p>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</p> <p>- 제7기('18.7 ~ '20.6)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- - 어린이집 수입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리 강화 방안 심의 -</p> |
|---|---|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0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를 개최하여 ‘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’을 논의한다고 밝혔다.

〈주요 내용〉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즉시 조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집중 점검 실시(시군구 교차 점검) · 전체 어린이집 대상 지도 점검 |
| 관리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모보육료 지출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강화 · 위반 사실 공표 대상 확대(300만 원 → 100만 원 이상) ·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 시 어린이집도 설치 금지 |
| 기반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어린이집 점검 지원조직 구축 ·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 기능 강화 ·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성화 · 회계 컨설팅 강화 |
| 공공성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·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접근성 확대 ·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|

■ 이날 논의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은 집중 점검 즉시 실시(10.22~)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하여 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.

-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,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·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.
-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.
- 더불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·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·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.

○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, 학부모·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- 부정신고·민원 사건,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~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.
- 또한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‘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’ 기능을 강화*한다.

*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하여 복지부에 이첩되고 있는 수준. 이를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신고자 상담, 직접 조사·처리까지 수행하게 할 계획

-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·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.

○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.

-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·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.
- 또한 보육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 개정을 통해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(예: 50% 이하)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,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(www. childcare.go.kr)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%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.

* 영유아보육법 개정안(윤종필 의원, '16.10월 발의) 법사위 계속 심사 중('17.11월~)

■ 한편,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.

- 특히,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, 아동의 '인권 및 안전' 관련 항목·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한다.

■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“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, 이를 위해 보육 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” 고 밝힐 예정이다.

- 또한, “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강조할 계획이다.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4842,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·보육기반과, 2018. 10.25.

VI

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! 보건복지부, 짹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

-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 다짐 이어가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진행(10.31~11.28)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‘짹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’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‘짹파파’는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‘가나다(가족문화개선, 나부터, 다함께) 캠페인’*의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한다.

* 가나다 캠페인: ‘신랑·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’, ‘아빠의 육아 참여’, ‘고비용 양육문화 개선’을 세부슬로건으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캠페인

■ 이 캠페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(4주간) 진행되며, 개인 사회관계망(SNS·Social Network Service)에 직접 촬영한 이미지·동영상, 필수 핵심어 표시(해시태그)*를 포함해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.

* #짹파파, #함께하는아빠, #보건복지부, #가나다캠페인

○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빠 동료를 둔 직장인,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이웃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아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릴레이 캠페인 웹페이지(www.짹파파.kr)와 네이버 포스트(post.naver.com/babybirth_mw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○ 많은 호응을 얻은 게시물 작성자 86명에 대해서는 경품*을 시상하며 선정자는 11월 30일에 릴레이 캠페인 웹페이지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.

* 1등 액션캠(1명), 2등 에어프라이어(5명), 3등 인공지능 스피커(10명) 등

■ 보건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은 “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의 실천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 “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참여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이어가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,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

되기를 바란다.”고 강조하였다.

- 한편, 여섯 남매를 키우는 가수 박지현 씨와 개그맨 이정수 씨가 짹짹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참여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동참한다.

짹짹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개요

- (이벤트명) ‘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’ 짹짹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
- 일정
 - 참여 기간: '18.10.31.(수) ~ '18.11.28.(수), 4주간
 - 당첨자 발표: '18.11.30.(금)
 - * 릴레이 캠페인 특성 상 참여 기간 이후에도 자발적 확산이 가능하나 당첨자는 기간 내 참여자로 한정(선정자 발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(참여 방법)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활용
 -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직접 촬영한 이미지·동영상, 필수 해시태그(#짹짹과파, #함께하는아빠, #보건복지부, #가나다캠페인)와 함께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(최소 2명 이상)를 지목
 - 아빠 동료들 둔 직장인,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이웃과 같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캠페인에 참여 가능
- 운영 방안
 - 많은 호응*을 얻은 다짐/응원 게시물 작성자를 선정해 경품 시상
 - * 원 게시물의 좋아요 및 댓글 수(본인 작성 댓글 제외) 합산해 상위 86명 선정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4842,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, 2018.10.31.